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차	2차
	일자	2020.12.07. 18:30
	장소	ZOOM 화상회의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O	O	O	O	X	O	O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O	O	O	O	O	O	12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12월 28일 10대 간호대학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참석위원 변경
경영경제대학	보고사항 없음
사범대학	12월 10일 비대면-기프티콘 간식사업 예정
사회과학대학	네. 저희 단위도 12월 9일에 기프티콘 형태로 비대면 간식사업 진행합니다.
약학대학	-
예술대학	12월 14~18일 중 하루 정하여 비대면 간식사업 시행
의과대학	보고사항 없음
인문대학	12월 9일날 3시, 7시 기프티콘 간식사업 진행. 코로나19 2.5단계 격상으로 학생자치공간 폐쇄 의결. 오늘 정문에서 부정선거 폭로 인문대 학생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 진행.
자연과학대학	보고사항 없음
통일공대	보고사항 없음
동아리연합회	간식사업 공고 완료. 국장인준 완료. 코로나19 2.5단계 격상으로 8일 자정 이후 동아리방 폐쇄.

2. 보고 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단위별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취합: 12.31까지. 중대중심에 게시 목적.
- 단위요구안 작성:

  학사정책, 강의제도, 시설환경 관련 단위별 요구사항

  단순 비품 구매는 교학지원팀과 상시 협의로 처리

  1.11까지 단위별 초안 취합 후 중운위 논의
- 중앙감사위원장 선발: 지난 회의 결과대로 12월 28일 청문-인준 진행

인문.정: 세칙이랑 회칙 보낼 때, 인문대 동아리 관련 세칙과, 인문대에 인권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 세칙도 보내야 하는지? 또한 단위별 단위요구안은 1월 11일까지 자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총: 인문대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판단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단위요구안 또한 단운위 논의 통해 자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단위요구안 양식은 따로 없는지?
총: 예년에 사용했던 것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3. 논의 안건

1. 총학생회 국장위원장단 합동인준

- 인준예정자 명단

집행위원장	도시시스템공학과 17 배성호
교육자치국장	경영학부 18 황재은
일상복지국장	프랑스어문학과 18 최영현
연대사업국장	국어국문학과 18 하수경
전략정책국장	응용통계학과 18 황재원
홍보소통국장	건축공학과 18 김린
회계사무국장	전자전기공학부 19 김민진
문화위원장	국어국문학과 18 이유진
인권복지위원장	국어국문학과 17 김성민
성평등위원장	러시아어문학과 19 김유림
장애인권위원장	사회학과 19 정승원
졸업준비위원장	경제학부 18 허준범

총: 논의안건 1번인 총학생회 국장/위원장단 합동 인준 시작하도록 하겠다. 합동인준 방식은 집행위원장부터 졸업준비위원장 인준예정자까지 소개와 질의응답을 마친 후, 한 단위씩 인준을 의결하도록 하겠다. 집행위원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집행위원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63대 오늘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인준을 받을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과 17학번 배성호입니다. 1년간 총학생회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학생회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 관리 및 총학생회 내 각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학우들의 신임을 얻어 당선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 내 총학생회 사업 진행의 방향성과 학생회장단의 소신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이 학우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학우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함께하는 학생회, 앞장서서 발로 뛰는 변화하는 학생회, 학우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을 위한 학생회를 만들어 총학생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총학생회 국장, 위원장단 회의의 주관자로서 국, 위원회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이행하는 정책들에 대해 일정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함께 검토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국, 위원회별로 임기 내 업무 기획안을 제출받고, 전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상세히 검토하여, 학우분들께 약속드린 정책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금 환불, 총장선출제도 개선 등 학우들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맡아 학우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분기별 간담회, 단과대와의 학생자치포럼 개최 등 학우들과의 소통 역시 직접 맡아서 총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추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문 있는지??

부총: 해당 인준 예정자에 대해 질의응답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총: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자치국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교육자치국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제 63대 총학생회 교육자치국장 인준을 받을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8학번 황재은입니다. 교

육자치국의 활동 방향성과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치국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과 학생권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총학생회 내의 기구를 통해 대변하기 위해 신설된 국입니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국가재난 등의 발생으로 교육권과 교육환경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학사 관련 협의와 사업 진행을 위한 학사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학사정기협의체 구성,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채점 기준과 세부 성적 공개 강화, 융합·연계 정보 플랫폼 개설과 다전공 자료집 제작, 학점 이월 제도 개편, 교육 관련 공모전 개최 그리고 교양과목 주차별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사정기협의체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학기 중 실제 강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교육 담당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학사와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 해당 협의체를 통해 학교 측에 이를 직접 전달해 불편사항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교육자치국 내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세부 성적 공개 강화, 학점 이월 제도 개편 등의 사업들을 학교 본부 측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자치국은 학우분들이 실질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학사 제도들의 수정 및 보안을 통해 중앙대학교 학우분들의 보다 높은 교육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의응답 있으신 단위는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된다. 질의응답 없으신 관계로, 다음 일상복지국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일상복지국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세요, 제 63대 총학생회 일상복지국장 임명예정자 프랑스어문학과 19학번 최영현입니다. 일상복지국의 활동 방향성과 사업 계획을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상복지국이란, 교내 생활 등을 비롯해서 학우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국입니다. 세부적으로 대여 사업, 총장배 진행, 야식 판매 사업, 불법 카메라 탐지 조사 사업, 기숙사 운영 개선, 잉여 공간을 활용한 학습 공간 확충, 교내 셔틀버스 사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중 대여 사업과 총장배 진행 그리고 야식 판매 사업은 사업 특성상 사람이 접촉해야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불법 카메라 탐지 조사 사업은 학교 주변 상권까지 불법 카메라 탐지 조사 범위를 늘리고, 지역과 협업하여 진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숙사 운영 개선은 통금 제도 개편과, 분할 납부 방식 선택 가능 등을 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잉여 공간을 활용한 학습 공간 확충은 잉여 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학습 공간으로써 필수적인 기본 시설을 갖춰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셔틀버스 사용 활성화는 중앙대 입구 역 노선의 운행 시간 확대와 셔틀버스 어플 개선을 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없으므로 다음 연대사업국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연대사업국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세요, 제 63대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임명예정자 하수경입니다. 연대사업국의 활동 방향성과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연대사업국은 교내외 다양한 계층 간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합니다. 세부적으로 농민학생연대활동, 학내 노동자 연대활동, 비건식 확대 사업을 비롯한 권리보장 사업, 외부 업체 제휴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 농민학생연대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장 농활이 불가능할 경우 농활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학내 노동자 연대활동은 노동자분들과 상시적인 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보다는, 연사국에서 노동자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건식 확대 사업은 전대에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약에 제시한 것처럼 입점업체와의 협의나 학생회의 자체적인 물품 마련 등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비건 학식 도입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부 제휴사업의 경우, 기존에 제의가 들어왔던 업체와의 협의만 진행했던 것에서 나아가서, 흑석, 상도에 있는 카페 등의 개인 업체와의 제휴를 총학생회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학생 편의를 확대시키고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없으므로 다음 전략정책국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전략정책국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제 63대 총학생회 오늘 전략정책국장 임명 예정자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 18학번 황재원입니다. 전략정책국은 총학생회의 공약 및 정책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 관리, 점검합니다. 시행 예정 공약에는 한자 졸업 요건 폐지, 회칙 내 재정 조항 강화, 총학생회 정보 전달 프로세스 구축, 중대 중심 개편 등이 있습니다. 한자 졸업 요건 폐지는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공약으로, 종강과 동시에 한자 교육과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칙 내 재정 조항 중 기타 납입금, 지원금 등 부족한 조항들을 추가하여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을 위한 회칙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회칙을 검토하고 수정할 예정입니다. 중대 중심의 경우, 2021년 1학기 개강 이전까지 게시판 개편을 진행하여 SNS를 통해서만 전달되던 정보들을 중대 중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회원 가입 등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방법을 고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SNS와 중대 중심을 활용하여 총학생회 정보 전달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학기별 공약 이행률과 월별 사업 사전, 사후 보고, 주별 회의에 대한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우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소통국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홍보소통국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63대 총학생회 홍보소통국장 임명예정자 건축학부 소속 18학번 김린 입니다. 홍보소통국은 62대의 디자인 마케팅국과 소통국이 통합된 신설된 국으로서 디자인과 홍보마케팅 및 소통창구를 활용한 CS 업무를 담당 할 예정입니다. 정기 제작물로는 매달 총학생회의 사업을 안내하는 카드뉴스와 학사 정보 안내 포스터 등이 있고, 새로운 소통창구인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공지 또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외 유튜브 활용 방안으로는 '중앙을 빛낸 위인들 시리즈' 가 기획 및 편집중에 있습니다. 홍보소통국이 담당하는 사업으로는 '푸앙 굿즈 로고샵 입점', '주요 사업 및 학사정보에 대한 다국어 공지 진행' 이 있으며, 이외 협력 사업인 '중대중심 개편'과, '총학생회 정보전달 프로세스' 에서 디자인을 맡을 예정입니다. 더 많은 학우분들께 총학생회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소통창구 개선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도움이 되는 총학생회 사업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계사무국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회계사무국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제 63대 총학생회 '오늘' 회계사무국장 임명예정자 전자전기공학부 19학번 김민진입니다. 앞으로의 회계사무국의 방향성과 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계사무국은 총학생회비의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회계를 관리하고 총학생회 내에서의 사무적인 업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다른 어느사업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며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 처리를 하여 회계장부를 만들고, 월별 회계, 전체 회계를 작성하여 학우분들이 편하게 회계내역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회칙 내 재정조항을 강화하여 기타납입금 뿐만 아니라 지원금 및 기타수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별 회계 정기공개를 의무화하여 학우분들의 회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누락없이 꼼꼼한 회계 정리 및 청렴한 회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중한 학생회비가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없는 것으로 하겠다. 다음으로는 문화위원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문화위원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63대 총학생회 문화위원장 임명예정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유진입니다. 문화위원회는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학우분들과 함께 고민하여 올바른 대학 문화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중앙대학교 학우분들의 교내외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비대면 학기를 보내고 있는 학우들에게 새

로운 온라인 대학 문화 방향을 제시하고, 코로나 상황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 그에 따른 문화생활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위원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입니다. 총학생회는 매년 여름 축제와 가을 축제를 진행합니다. 2021년도 여름 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약인 온라인 토크 콘서트 등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학우분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을 축제는 2학기 학사정책과 당시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 온라인/오프라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조정회의입니다. 공간조정회의는 교내 문화 체육시설의 사용 단위를 조정하고 중재함을 통해 학우들의 문화 및 체육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교내 문화 체육시설들이 전면 폐쇄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안전과 방역이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 동안 방역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요구하는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응하고자 문화위원회는 공약에 포함되었던 방역 페이즈에 따른 시설 개방 및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학교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 제휴 사업입니다.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에 대해 티켓 할인, 초청 이벤트 등의 제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방식을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행사용 시스템 대여입니다. 문화위원회는 공연이나 행사 진행 관련 물품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되었으나, 코로나 상황과 외부 수요에 따라 추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없는 것으로 하고 인권복지위원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인권복지위원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세요, 제 63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 임명예정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학번 김성민입니다. 인권복지위원회, 이하 인복위의 활동 방향성과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복위는 학우 분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복지사업'과 건강한 인권 문화 정착을 위한 '인권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기존에 진행해온 다이어리 제작,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 의혈지킴이 규찰대 관리 사업은 인복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유지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축소, 혹은 중단된 사업인 공동구매, 무빙위크, 귀향버스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63대 인복위는 '복지'에 치중해 있던 기존의 사업들을 정비하고, 연대사업국 · 성평등위원회 · 장애인인권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인권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총학생회 '오늘'이 내세운 공약 중, '중앙도서관 열람실 운영 개선' 공약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사물함과 더불어 중앙도서관의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전부터 이어져온 '교내 비건메뉴 점진적 확대' 공약은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대사업국의 주도 하에 우리 위원회도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없으신 걸로 하고 성평등위원장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성평등위원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제 63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장 임명예정자 김유림입니다. 성평등위원회의 방향성 및 연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학내 성평등 및 반 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활동과, 관련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대학교 내외의 다양한 인권 단체들과의 협력 활동, 인권 문화제, 다양한 지원사업 등 기존의 사업들을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사업으로 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사태에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 또한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장애인권 위원회와 인권복지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인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다.
인문.정: 후보자께 드리는 질의가 아니라, 혹시 올해도 장애인권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지?
총: 그렇다.
인문.정: 모든 특기구가 총학생회의 특기구인데, 해당 특기구만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장단이 노력하셔서 학생회관 내 공간을 따로 마련하거나, 총학생회실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두 특기구가 분리된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셨으면 한다.

총: 저희도 학생회관 내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권위원회실이 마련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학생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타 건물에 빈 공간이 있으면, 장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와 합의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같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장애인권위원회 인준예정자 모시겠다.

장애인권위원장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63대 장애인권위원회위원장 예정자 정승원입니다. 장인위는 교내 장애학생들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장애인권감수성을 통한 베리어프리한 캠퍼스를 그려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입니다. 2020년도 1대 장인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소외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메인으로 하여 정책과 의제사업을 진행했고 교내의 구조적 불리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리어프리 지도의 완성이 폐쇄된 학교와 정해진 인력으로 어려웠던 부분, 대중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베리어프리라는 '오늘' 총학생회의 공약을 통해 세 가지 기조를 세웠습니다. 1. 전문성을 기반으로하여 장애학생의 권리를 위한 의제사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소외된 목소리를 무대 위로 올리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해결하겠습니다. 2. 네트워킹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의 문제는 사회에서 기인하기에 장애인권 관련 이슈를 사전에 고려하게 하여 사회활동식 참여활동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3. 더욱 다가가는 장인위가 되겠습니다. 장애를 손상의 개념으로도 확대하여 장애인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싸이클사업을 보존하여 학우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장인위는 교육권 사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베리어프리 지도를 완성, 제작하고, 총학생회의 모든 홍보물과 행사에 배리어프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형 책걸상을 최소화하고 교내 안내견출입전용 스티커 부착, 장애인권세미나를 통해 중앙의 학생자치에서 사전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치권을 얻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라는 이유로 활용 가능한 품을 한정하지 않고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교육, 문화, 자치소통, 학술, 복지, 연대의 카테고리를 통해 22개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오늘만, 오늘까지가 아니라 오늘부터를 넘어 오늘도 베리어프리한 켐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졸업준비위원회 인준예정자 모시도록 하겠다.

졸업준비위원회 인준예정자 **[발언전문]**
안녕하세요, 제 63대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장 임명예정자 허준범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의 활동방향성과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과 취업 관련 사업과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졸업 앨범 및 졸업 기념품제작과 함께 LINC사업단 및 인재개발원과의 연계사업 및 학위복 리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졸업 앨범과 졸업 기념품제작 사업은 학우분들의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할 것입니다. 투명한 업체선정과 꼼꼼한 진행으로 학우분들께 한치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LINC 사업단과의 연계는 새로운 활동으로 학우분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초점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복 리디자인은 2022년 졸업 시 새로운 디자인의 학위복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없으신 걸로 하겠다.
간호.비대위: 바로 인준 진행 예정인지?
총: 그렇다.
간호.비대위: 국이 전체적으로 작년과 달라졌고 집행국 명칭 등이 바뀌었다. 소통국과 디자인국이 홍보소통국이 되고 교육자치국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데 맞는지?
총: 그렇다. 기존의 소통국과 디자인국을 홍보소통국으로 통합하고, 기존 소통국의 파이로 교육자치국을 신설했다.
간호.비대위: 네, 총학생회칙 19조에는 전체대표자학생회의에서 집행국 신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확인 가능한지?
총: 여기서 '신설' 이라고 함은, 기존에 존재했던 6개의 국에서 추가로 국이 신설될 경우에 전학대회 의결에

따른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국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지?
간호.비대위: 그러면 37조 중운위 업무 및 권한에서 업무집행의 조정은 중운위에서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도 결국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준 전에 이 부분을 논의하고 의결 후에, 인준 진행했으면 한다.
총: 의견 있는 단위는 자유롭게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총학생회 회칙을 공유해줄 수 있는지?
총: 잠시만요.
부총: 지금 보시는, 하단부에 나와 있는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41조에 집행국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고 되어있다. 43조에 집행국에는 제반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국의 총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변경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중운위 논의나 총학생회장단 권한으로도 이행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린다. 아까 말씀하신 중운위 해당 조항도 보도록 하겠다. 언급해주신 조항이 37조 4항 집행국 업무 조정의 내용인 것 같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진행하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국의 구성과 해당국의 국장/위원장단 후보를 인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해드리겠다.
경경.정: 지금 37조 4항을 보면 집행국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지금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집행국이랑 집행부랑 동일한 명칭인지?
총: 여기서 지칭하는 집행국이라 함은 집행위원회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경경.정: 확인했다.
부총: 간호대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회칙은 산하위원회의 구성이나 인원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리겠다.
간호.비대위: 이게 학생회를 구성하면서 조정되었고, 지금 중운위에서 관련 설명을 들었으니 이 부분에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만 의결하고 인준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총: 그러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 제목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의 자리를 '중앙집행부'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총학생회 회칙에 명시되어있는 집행국과 다른 의미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앙집행부로 말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의결 제목이다. '총학생회 집행국들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집행부, 교육자치국, 일상복지국, 연대사업국, 전략정책국, 홍보소통국, 회계사무국으로 한다.' 라는 제목으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단위는 채팅창으로 '찬성'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잠시만요.
...
정정하겠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직책이기 때문에, 중앙집행부 내용은 빼고 의결 진행하겠다.

의결제목	'총학생회 집행국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자치국, 일상복지국, 연대사업국, 전략정책국, 홍보소통국, 회계사무국.'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총: 다음은 직책에 대한 인준 진행하겠다.

의결제목	'도시시스템공학과 17 배성호를 집행위원장으로 인준 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경영학부 18 황재은을 교육자치국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프랑스어문학과 18 최영현을 일상복지국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국어국문학과 18 하수경을 연대사업국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응용통계학과 18 황재원을 전략정책국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건축공학과 18 김린을 홍보소통국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전자전기공학부 19 김민진을 회계사무국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국어국문학과 18 이유진을 문화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국어국문학과 17 김성민을 인권복지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러시아어문학과 19 김유림을 성평등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사회학과 19 정승원을 장애인권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의결제목	'경제학부 18 허준범을 졸업준비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2. 2학기 등록금 환불 논의 관련

- 논의 방향 및 프로세스

총: 논의 안건 2번이다. 2학기 등록금 환불 논의 관련에 대하여 논의 방향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안건이다. 자유롭게 의사 표현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관련해서 국가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태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적립금을 코로나 등 특수 재난 시 이사회 의결 통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다만 사학법의 개정안이 4월 21일부터이다. 그래서 해당 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등록금 반환 관련 논의를 계획을 해

야 할 것 같다.
일단 총학생회에서 가지는 목표는 성적장학금을 유지하고, 학우들과의 협의를 통해 등록금 환불을 타결하는 것. 큰 방향성을 이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학교와의 협의를 이끌어나갈지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
통공.부: 일단 저희 중운위 내에서 논의 방향과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단과대별로 먼저 의견을 취합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단위요구안과 함께 단과대별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중운위에서 논의 방향과 프로세스를 조금 더 결정했으면 좋겠다.
총: 다른 단위 의견 있으실까요?
인문.정: 혹시 4월 21일이 내년 4월 21일인지?
총: 그렇다.
인문.정: 지금 2학기 종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4월 21일까지 2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를 끌고 가는 거 자체가 시간상으로 늦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내년 1학기가 비대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내년 1학기에도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 고려도 중요하지만, 중운위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우신 '성적장학금 감면 없는 등록금 환불'은 전반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특별 장학금 지급과 등록금반환을 좀 명백히 구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등록금 환불 관련 협의체라는 것이 1학기 등록금 반환 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학우들이 과연 자세한 정보를 제대로 제때 전달받았는지는 의문이다. 학우들에게 등록금 관련 현황을 바로바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중운위 차원의 입장을 내고, 요구안을 작성한 다음에 총장단 학교본부에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총장단과 학교본부가, 지난 1학기에도 학생회와 만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중운위 차원에서 그 이상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계절학기 등록금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총: 사학법 외에 고등교육법은 내년 1월 21일에 시행 예정이다. 이 법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학우분들의 의견수렴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말고사가 온전히 끝난 후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프로세스가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설문조사라 함은, 학우분들의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인식 조사와 또한 학우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등록금 환불에 대한 방향성을 취합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이후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설문조사 자체는 좋으나 우선 설문조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학우들이 설문조사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저번 62대에 경우에도 등록금 환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지만, 그 등록금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 됐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을 띄는 학우분들도 있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어떻게 학교에 전달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 알겠다. 아직 학교 측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중운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기 바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묵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논의를 진행하되, 설문조사나 그런 것에 있어 카드를 숨긴다는 것인지?
총: 후자가 맞다. 학교가 가만히 있다고 저희가 가만히 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바이다.
간호.비대위: 비대위원장을 인계받을 때 전대 총학생회장이 협의체 관련해서, '어차피 다음대 당선되면 또 해야 하는데 그때 당선되면 하겠다.' 라는 식으로 학교에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2학기 협의체에 대해 인

계받은 내용이 없는지?
총: 움직임이라는 것은 지금 여타 다른 수도권 대학에서도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다. 전대 중운위에서 인수인계를 받았고, 1학기 등록금 환불 협의체 당시 2학기 등록금 환불 협의체가 충분히 재구성 될 수 있다는 말을 전달받은 바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제작하고 중운위와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한 뒤, 기말고사 다 끝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예술.정: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62대 총학생회 페이지를 보다 등록금이 학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2학기가 끝나야 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2학기가 끝나고 공개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반환 협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역을 확인해야 설문조사를 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끼리 설문조사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고 정보가 많지 않은데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무지한 상태에서 섣불리 하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호.비대위: 설문조사는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학생들이 어떻게 원하는지를 알아야 대표자인 우리가 이를 기반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백날 말해도 학생들이 진짜 원하냐고 물었을 때는,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원한다는 증거가 되니까 설문조사는 충분히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경경.정: 경경대도 설문조사 자체는 간호대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단체 톡방에 관련 내용이 공유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다.
총: 중운위의 허락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예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예결산 자료가 언제 저희한테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시기가 많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정리하자면 기말고사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설문조사에는 등록금 환불에 관한 배경지식을 설명을 함과 동시에 학우분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다. 설문조사 질문은 총학생회가 1차적으로 초안을 짠 뒤, 중운위와 합의하에 질문을 수정하면 되겠다.
사과.정: 그럼 프로세스 논의 방향은 설문조사만 얘기되고 오늘 안건은 끝난 것인지?
총: 그렇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우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이 취합되어야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혹시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할지? 추가나 보완이 필요할지?
사과.정: 아까 어느 단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운위 차원에서도 의견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게, 단운위가 더 세분화된 학생 대표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단위별 의견 취합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총: 알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한을 드리면 될지? 단운위 회의 결과를 알려주시면 종합해서 설문조사를 제작하도록 하겠다. 단위별로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경경.정: 경경대는 내일 회의 바로 진행한다.
인문.정 :인문대는 토요일에 회의 후 알려드리겠다.
사범.정: 사범대는 내일 회의 후 바로 알려드리겠다.
총: 그럼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기한을 드리면 될지?
간호.비대위: 간호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회의 시작이다. 의견 취합이 늦어질 수 있다.
총: 그럼 조금 더 늘릴까요?
부총: 다음 중운위 회의 전까지 단운위를 한번씩 다 진행하시는지?
간호.비대위: 네 그전까지는 다 진행 합니다.
총: 그럼 다음 주 18일은 어떨지? 그때까지는 취합이 되어야 중운위 회의 때 설문조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21일까지도 가능하다.

의과.정: 의과대학은 12월 말까지 시험이 있는 상황으로, 21일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경경.정: 총학생회에서 설문 준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18일 가능한 단위대로 의견을 내고 해당 의견을 준비에 반영한 다음에, 나머지 단위는 차기 회의 때 의견을 내서 종합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총: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21일까지 보내주시되 불가능한 단위는 차기 중운위 회의까지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오늘 논의가 전체적으로 홍보 방법이나, 시기나, 학교 본부에 요구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이던지 산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설문조사는 기말고사 후 시행하되, 설문조사 질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단운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의견을 모아달라는 말씀인지?
총: 그렇다. 차기 중운위 회의인 12월 28일까지 정리가 된다면 종합 정리가 된다면 설문조사 기간은 그 이후가 되다. 의견 더 있을지? 단위별로 취합되는 단위는 최대한 빠르게 넘겨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설문조사가 제작될 것 같다.
사과.정: 설문조사에 들어갈 문항을 굳이 단운위까지 내려가서 정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문조사 문항 자체는 한정되어있다고 생각하고, 만족도 조사나 퍼센테이지 조사 정도 될텐데, 이는 중운위 자체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운위에서는 설문조사 이후에 어떻게 학교에 요구를 할 것인지, 대자보 작성이라던지 학과 입장문을 모아서 제출한다던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논의하고 설문조사에 들어갈 문항 자체는 그냥 중운위 내에서 정할 수 있지 않나 의견을 내보고, 다른 단위 의견을 묻고자 한다.
인문.정: 동의한다. 단운위에서는 설문조사 후에 단과대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에 대해 논의하면 될 것 같고,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와 중운위 내부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간호.비대위: 설문조사 문항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단운위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맞는지?
총: 그렇다.
사과.정: 그럼 어떤 의견을 취합하는 것인지?
간호.비대위: 사과대에서 말씀한대로 단운위 의견을 취합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과.정: 그럼 설문조사 문항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인지?
총: 그렇다. 프로세스도 넘겨주셔야 설문조사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사과.정: 아까 설문조사 내용을 단운위에서 취합하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한 단운위 의견 취합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3. 총학생회 2차가해 사건 관련,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자 3인에 대한 논의

- 안건 배경:
  62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탄핵 및 국장위원장단 파면 관련 논의 진행
  (성평위) 62대 총학생회장 명예 탄핵 및 국장위원장단 명예 파면 총투표 실시 요청
- 총투표 요구 및 해당 사안에 대한 63대 중앙운영위원회 입장 논의

총: 총학생회 2차가해 사건 관련,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가해 지목자 3인에 대한 논의이다.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님이 생각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부총: 안건을 상정할 때, 명예 파면이나 명예 탄핵을 위한 총투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전달을 받았다. 하지만 명예 파면이나 명예 탄핵은 회칙상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해당 조치의 실효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다만, 성 관련 사건과 이후 2차가해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인지하고 재발방지 노력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의된 안건은 안건지에 쓴 것과 같이, 임기가 종료된 총학생회장과 국장단에 대한 명예 파면과 명예 탄핵을 하기 위해서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으냐 내지는 실시할 것이

냐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본 사안에 대해서 63대 중운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다.
통공.부: 지금 안건 배경에 중운위에서 논의를 했었다고 써져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사과.정: 63대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는가?
부총: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나, 인수인계에서 해당 상황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우리도 회의록을 통해서 회의 과정이나 내용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과.정: 우선 1차 임시 회의에서 62대 중운위에서 선거 비용이나 선거 피드백, 2대 중앙감사위원회 선발에 대한 내용은 임시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 가져왔는데 이 내용은 왜 안 가져왔는지? 이걸 2차 회의에서 상정을 해야만 했던 내용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린다.
부총: 임시회의의 안건은 62대 마지막 회의록이나 인수인계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62대 총학생회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당사자 이외의 구성원이 이 문제를 외부로 루머를 퍼트리는 2차가해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 중운위에서 이에 대해 진상규명 tft를 구성하여 논의를 했다. 해당 tft에서는 관련자로 추정되는 인원을 특정해서 조사하지는 않았고, 사건의 경위나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총학생회 내에서 2차가해 발언이 있었고 2차 가해 발언이 총학생회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경위가 있었음을 파악했다. 이후에 선거를 진행했고, 해당자로 어떤 인원이 지목되었는지는 선거 이후에 파악하였고, 이는 TFT 활동상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인원이다. 때문에 TFT에서 확인한 경황의 직접적인 관련자가 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그런 사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지목된 사람들이 실제 관련자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사과,정: 방금 말하신 것처럼 TFT를 통해 루머 경위를 파악했고, 경경대와 인문대 두 단위 모두 당시 tft 단위에 있었는데, 임시 회의에는 필요한 내용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1차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걸 개별 단위의 안건 상정으로 들고 와서야 논의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29일부터 30일까지 관련해서 연서명이 진행되었고 내부 2차 가해자 3인에 대한 파면과 학생회장 탄핵에 대한 연서명을 했고, 다음날 6시 반에 기자회견까지 했다. 또 62대 중운위에서는 63대로 인수인계를 했다는 의견이 있다.
부총: 이 사안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논의하고 싶지 않아서 안건으로 넣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지난 회의가 다소 OT처럼 진행되었고, 비정기 회의였고, 중운위가 처음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회의였기 때문에 1차 회의 안건으로 가져올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 점은 인정하고 가겠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안건을 시작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다. 하나 정정할 점은 중운위끼리 인수인계받은 바도 없지만, 저희가 총학생회나 중운위에게 해당 사항을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다. 우리도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 되겠다.
인문.정: 62대 부총학생회장 사퇴와 2차 가해에 관련한 사건이, 아직 성평등 문화가 아직 중앙대학교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장단이 학교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이끌어 갈지 물어보는 것이다. 인문대는 명예 파면이나 명예탄핵이 회칙상의 절차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명예파면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분명히 62대 총학생회장이 잘못을 했고, 2차 가해자 지목인 3인에 대해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입장을 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든다.
간호.비대위: 제가 듣기로는 당시 총학생회장 없이 성평위가 중운위원들에게 논의를 요청해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다. 들은 바 없으신지?
총, 부총: 아는 바가 없다.
간호.비대위: 62대 성평위원장이 연대를 요청할 때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중운위원들에게 연대를 요청했다고 한다. 또, 63대 중운위에게 한번 더 연대를 요청한다고 했다고 한다. 연대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총, 부총: 없다.
간호.비대위: 명예파면이나 탄핵은 회칙상에는 없는 것이어서 중운위 내에서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진행해야 한다. 실제 임기 중인 사람의 파면이나 탄핵요청은 우리가 중운위 회의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회칙이 없기 때문에 전학대회의 절차가 필요하다.
경경.정: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게 전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건 자체가 2차가해에 대한 사건이며 전대 논의사항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또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 이런 명예 파면이나 탄핵을 논의하려면 가해자들이 정말 가해를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증거나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과.정: 간호대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총학생회장 없이 진행된 회의가 11월 29일 회의인지?
간호.비대위: 맞다.
통공.부: 우리도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으나, 정확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혹시 이런 명예탄핵이나 파면에 대해서 피해자분이 이를 원하는 것인지, 혹은 성평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인 지 아는 바를 여쭤보고 싶다.
사과.정: 피해자 분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6월에 tft가 생긴 것도 피해자가 요청해서 설립이 되었다. 11월 30일에서도 집회에 피해자가 쓴 발언문을 대독하는 대변인이 오셨었다. 만약 회칙상에 총투표나 명예탄핵이나 파면이 없어서 못한다면, 학내에 반성폭력 문화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할 때 명예탄핵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중운위에서 입장문을 낸다던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피해자가 있고, 6월부터 tft가 활동을 한 상황에서 어떤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경경.정: 피해자분께서 요구를 했을 때는 62대가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63대가 또 tft를 꾸리고 입장문을 내던가 그렇게 한다면 사건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입장을 같이 표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자분이 처음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tft에서 공개했던 부분이 63대에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피해자분이 원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간호.비대위: 어떤 징계를 내리던지 간에 근거가 필요한데, 이에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아직 인수인계 받은 바가 다르고 부족해서 증거가 있어야 징계를 내릴 수 있으니, 정보를 더 확립해야 할 것 같다.
사과.정: 징계가 1차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모든 방안일 수는 없다.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면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62대 총학생회 규탄에 대한 입장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으니 앞으로 중운위에 속하는 인원들이 학내 성폭력을 방지하겠다는 입장만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징계만이 피해자와 연대할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통공.부: 저번 1차 회의에서 인문대 학생회장과 사과대 학생회장께서 앞으로의 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고 연서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원하는 바를 전달받은 게 없어서, 63대에서 논의를 하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도 부족하다면, 이미 일어난 일 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방지하자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된다.
부총: 지금 요구되고 있는 방법, 또는 논의되고 있는 방법이 실효성이나 적합성에 대해서는 각자 의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학생사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재발방지나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다음 회의에서 각 단위의 입장을 가지고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한다.
총: TFT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TFT 조사만으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명예탄핵이나 명예파면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2차 가해자로 지칭된 분들에 대한

2차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중운위에서 신중한 포지션을 잡아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사과.정: 이 안건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학생회가 1년이 임기이고 62대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중앙운영위원으로 선발된 인원이기 때문에 63대는 아는 것이 없으니 다루지 않겠다고 결론짓고 가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묵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1년이라는 임기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당시부터 지속되어오는 2차가해라 생각하고 62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63대에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묵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여기서 논의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결정 즉 62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63대는 앞으로의 프로세스를 구축해나갈 것인지 혹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규명할 것 인지 이 두 가지로 첫 번째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만약 어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논의 즉 총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입장문 형태로 할 것인지의 논의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중운위에서는 전반적으로 62대에서 그친 일이니 63대가 다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경경.정: 사과대 회장님의 발언 중에 요지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린다. 62대 일이기 때문에 63대가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2차 가해라는 사건이고 피해자분께서 더 이상 알려지기 싫다고 하신 것으로 시작된 일인데, 63대로 넘어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이 또 다시 가해가 되는 것이 아닐지 의문인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63대에서는 오히려 62대에서 발생한 일을 계기로 좀 더 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과.정: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다음 회의에 해당 입장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중운위가 직접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62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피해자분이 처음에 확운위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넘기려고 한건 맞지만, 그 이후로 tft 구성과 탄핵을 요청했을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대변인이라도 모셔서 입장을 들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피해확산의 방지를 우려해서 안하게 된다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고, 이미 연서명까지 한 상황에 앞으로의 프로세스만 구축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 중운위 회의에 피해자 대변인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다.
총: 피해자 대변인을 모셔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차후에 대변인과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다만, 전제되어야하는 것이 피해자 대변인의 말씀만 듣고 조치를 내리기에는 상당히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가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2차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도 그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대변인의 말만 듣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어떤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
통공.부: 1차 가해자는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고,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사과를 안했다는 것이 맞는지? 피해자분이 2차 가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사과.정: 총학생회장 말씀은 2차 가해 사건이고,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해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입장문이라던지, 징계라던지 혹은 어떤 형태로든 중운위 차원에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지 말자고 하신 게 맞을까요?
총: 이 부분은 추후에 중운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
인문.정: TFT가 낸 진상규명 입장문을 다른 중운위 위원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문대 인스타그램 링크에도 첨부가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TFT에서 발표한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중운위가 완벽히 입장문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문대의 입장이었고, 파면이나 징계가 아니더라도 중운위 차원에서 분명히 62대 총학생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징계나 명예파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한다.
총: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경경.정: 경경대도 인문대 학생회장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문서화 시켜서 공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든다.
사과.정: 인문대가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입장문 아닌가요?
인문.정: 맞다.
사과.정: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중운위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이에 대한 입장문이 하나 없는데 아무리 프로세스를 잘 설립 한다고 한들 앞으로 학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의문이 든다.
동연.부 : 총학 차원의 재발 방지에 대해 찬성 한다. 그러나 사실 입장에 대한 표명을 꺼리는 것도, 중운위의 성급한 입장 표명이 전체 중앙인을 대표한다 말할 수 없다. 지금 많은 단위가 이에 대한 정보나 인수인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중운위 회의 전까지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회의를 시작할 때 입장을 표명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어떠신지?
총: 정리를 하면 차기 중운위 회의까지 단위별로 입장을 취합한 뒤, 단위별로 입장을 표명하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씀이신지?
동연.부 : 맞다.
총: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단위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통공.부: 인문대에서 말씀하셨을 때 인문대 인스타그램에 링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보가 단과대별로 다 흩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단 다음 회의 때까지 시간이 많으니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내부에서 먼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총: 좋은 의견이지만 자료를 중운위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피해자분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부총: 지금 인문대가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별게 아니라 TFT에서 공식적으로 낸 보고서 링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해당 진상 규명 입장문 같은 경우는 인문대가 아니더라도 TFT에 참여한 단과대 SNS에 올려져 있다. 혹은 확인할 수 없다면 인문대 학생회장께 요청하시면 되겠다.
총: TFT에서 외부로 정보유출은 삼가자는 전제하에서 활동을 하였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대 회장들에게 인수인계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경경.정: 인문대 학생회장께 질문이 있다.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자고 하셨는데, 입장문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또, 진상규명 입장문에 대해서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파악하고 이를 63대 중운위가 인정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표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식을 했다는 것에서만 입장문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까지 논의를 해야 63대에서 입장문을 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문.정: 경경대와 의견이 비슷하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2차 가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62대 총학생회 회장과 총학생회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까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답변이 되셨을지?
경경.정: 답변이 되었다.
총: 차기 중운위 회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하시고,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도 하신 후에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다.

3. 새내기새로배움터 진행 관련

- 2~3월 내 새내기새로배움터 실시 여부

총: 논의안건 3번은 새내기 새로 배움터 진행 관련이다. 먼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1차 회의때도 말했듯이 단위별 새터 방식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가오는 2월달, 3월달에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여름방학으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께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인문.정: 지금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여름으로 정하고 가자는 건 아닌가?
총: 아니고,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주시면 된다.
인문.정: 아직 과 학생회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정확히 단과대의 입장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이 논의는 추후에 지금 과 학생회 임기가 다 갖춰지고 새로운 단운위가 출범했을 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싶다.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느낌이다. 혹시 다른 단과대의 생각은 어떤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
총: 시기상조라는 데 동의를 하지만, 지금 논의를 하고 정하지 않으면 업체선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하지 않으면 2,3월 달에 새터를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문.정: 단대별로 진행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총학생회장님은 동일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과학생회와 단대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업체 선정 같은 절차도 필요가 없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총: 알겠다.
부총: 오늘은 하나만 정하고 가면 될 것 같다. 기존처럼 2,3월에 새터를 실시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합의를 하면 세부적인 실행방법은 단운위에서 고민해보시고 다시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사과.정: 지금 논의를 하면 바뀔 수 있는 사항인건지 의문이 든다. 어차피 12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새터를 못가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2,3월에 가는 새터는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에서도 2,3월에는 새터를 안가는걸로 결정했다.
동연.부 : 새터를 가지 않지만 여기 단과대중에 2,3월에 새터를 갈것으로 계획한 단과대가 있는지? 혹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단과대가 있는지?
사과.정: 사과대는 2,3월에 새터를 가지는 않지만 결정하지는 못했다.
동연.부 : 대부분의 단과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거나 2,3월에 가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간호.비대위: 2,3월에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다들 대면을 얘기하시는건지?
총: 업체선정을 하면 대면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비대위: 지금 수능도 그렇고 업체선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서울에 확진자가 250명씩 있고, 수능도 12월 3일에 겨우 보고, 다음 주에는 학교에 논술을 보러 대거 오는 상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총: 동의한다
부총: 2,3월내에 대면 새터는 당연히 불가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다만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관례적인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2,3월에 새터를 진행하는 단위는 없는 것 같다. 차후에 새터를 진행할 것이냐,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는 앞으로 중운위 회의에서 차차 논의를 하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지금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 안건을 끝내도 될 것 같다.
총: 의견이 있으신 단위가 있으신지? 차후 새터는 1월부터 논의를 했으면 한다.
??(인원파악불가): 새터를 여름으로 생각하는 단위가 있더라도, 그때도 솔직하게 말해서 코로나가 안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항상 모든 건 엎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 논의 안건 마치겠다.

기타 논의사항

총: 현재 총학생회 페이지에 부정행위 근절 캠페인 포스터가 업로드 되어있다.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격려하고자 각 단위 회장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를 받아서 공유를 하고자 한다. 괜찮으실지? 괜찮으시다면

개인톡으로 계정 보내주시기 바란다.
총: 익일(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시까지 107관 학생회관이 일부 폐쇄가 된다. 학생지원팀 교직원이나 총학생회 인원 모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아니면 출입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니 출입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금주 주말에 논술 시험이 예정되어있다. 금주 논술시험에서 중앙대에 출입하는 인원을 추산해봤을 때 예상 인원은 약 4만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운위를 통해서 주말에는 되도록 나오지 말라고 양해를 구해주시고 또한 학교에 나오시더라도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린다. 현재 논술 시험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강의실이 분산이 되어있어서 모든 건물에서 논술 시험을 치룰 가능성이 크다.
??(인원파악불가): 목요일부터 월요일부터로 되어있는 출입 자제 공지는 어떤 것인지?
총: 건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경.정: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공지 내린 것이 경경대인데, 교학지원팀에서 해당 기간동안 310관을 폐쇄한다고 공지를 내려달라고 해서 전달을 했다.
총: 107관은 8일부터 일부 폐쇄가 된다.
인문.정: 서라벌홀에도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통제기간이라고 되어있고, 통제되는 건물이 102관, 103관, 106관, 301관, 302관, 305관, 310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부총: 해당 건물들이 모두 논술 고사장이다.
총: 단위별 교학지원팀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 얻을 수 있다.
총: 이상으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